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금빛’ 내조의 여왕이 되다

글 **임종명** 아산재단 작가 / 사진제공 **김희선**



시부모, 남편과 함께한 김희선 씨. 시부모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남편은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삶의 의미를 알게 해준 존재”라며 고마워한다.

밤농사로 유명한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사는 김희선(31) 씨는 2019년 1월 15일 셋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7.5km 좌식 부문 금메달을 딴 장애인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신의현(39) 선수다. 우리나라 선수가 동계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그가 최초다. 그는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15km 좌식에서도 동메달을 땀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패럴림픽 베이비’인 셈이다. 부부는 그래서 아이 태명을 ‘금’과 ‘동’을 합쳐 ‘금동이’로 불렀다.

패럴림픽 이후 김희선 씨는 남편과 함께 매스컴을 많이 탔다. 남편이 장애를 극복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게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녀가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출신 주부라는 점도 세간의 관심거리였다. 그녀는 지난해 11월 제30회 아산상 효행가족상 수상자로 선정돼 남편의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시각장애를 지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지체장애인인 남편이 금메달을 따도록 내조한 공로를 인정받아서였다.

18세 때 만나 한 달 만에 결혼

1988년 베트남 동탑성 라이봉 지역에서 태어난 김희선 씨는 다섯 살 때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외할머니의 쌀국수 장사를 돕던 그녀는 18세이던 2006년,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국제결혼을 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남편은 2005년 2월 대학 졸업식 전날, 차를 몰고 집에 오는 도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1.5톤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3일 동안 혼수상태로 있던 그를 두고 의사는 다리 출혈이 심해 생존율이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결국 어머니(이회갑·70)의 동의로 수술을 받아 두 다리를 잃은 그는 평생을 휠체어나 의족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1급 지체장애인이 됐다.

6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 못하고 줄곧 방에서만 지냈다. 그러다 자신을 안쓰럽게 지켜보는 부모에게 미안해 효도하고 싶었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해 국제결혼을 생각했다. 때마침 동네에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그는 베트남에 건너가 김희선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다. 만난 지 한 달 만인 2006년 4월 13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베트남 남자처럼 보여 친근함을 느꼈다. 장애는 미리 알



신의현 선수는 2018년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로 기록됐다. 왼쪽부터 아들, 부인 김희선 씨, 신의현 선수, 딸, 어머니, 아버지.

고 선을 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혼인신고와 입국 절차 등의 서류작업 끝에 결혼 4개월 후인 2006년 8월 26일 남편과 함께 난생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그녀는 남편의 고향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녀는 시부모가 관리하는 밤농사와 23번국도 변의 농산물판매점에서 장사를 도우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도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매일 술에 의존했다.

시련 건디게 해준 시어머니와 첫째

늘 술에 취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는 다 포기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남편이 장애를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때 그녀에게 의지가 된 존재는 시어머니와 첫째딸이었다.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었던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살갑게 대했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 부모의 정이 그리웠던 그녀는 그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또 결혼과 함께 임신해 낳은 첫째 딸 은겸(12)이가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의현 선수는 휠체어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왼쪽). 아들(병철), 딸(은경)과 함께한 김희선 씨.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운동에 소질이 있어 최근 꿈나무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됐다(오른쪽).



녀는 괴로운 순간들을 버틸 수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운동에 소질이 있어 5학년 때는 충남도지사기 시군대항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땀고, 최근에는 꿈나무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됐다.

그녀의 시아버지(신만균 · 70)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40대부터 시력이 나빠지더니 지금은 겨우 명암만 확인할 정도로 시력을 거의 상실했다. 그녀는 2008년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충남대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받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베트남 이름은 '마이 킴 히엔'이다. 김희선이라는 이름은 시어머니가 장애인 남편을 둔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사는 며느리가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그녀의 베트남 이름에 있는 '킴'과 '히'의 어감을 살려 지어줬다.

남편 운동 내조하며 얻은 평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2009년 10월 어느 날이었다. 사고 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내던 남편이 마을사람의 권유로 휠체어농구를 시작했다. 남편은 운동에 두각을 보여 충남 아산시 휠스파워농구단에 들어갔다. 2012년에는 종목을 바꿔 장애인 아이스하키, 2014년에는 휠체어 사이클 선수로 활동했다. 2010~2014년에는 지인의 도움으로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에 취직해 생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 2015년에는 노르딕 스키로 종목을 변경하더니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 실업 스포츠클럽인 창성건설 노르딕 스키팀에 들어갔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남편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이 사라지고 술도 멀리하자 그녀는 운동선수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2013년 자동차 부품공장에 취직해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3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남편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몸에 좋고 맛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요리학원에 다녔고, 2013년에는 한식과 중식 조리사자격증을 땀다. 그녀는 카레, 갈비탕, 육회, 짜장면 등 못 만드는 음식이 없다. 김장철이면 배추 200포기를 담근다. 결혼 13년 만에 완전히 한국 아줌마가 됐다.

그녀의 내조에 힘입어 남편은 기량이 일취월장하며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2017년 1월 우크라이나 리비우에서 열린 장애인 노르딕 스키 월드컵에서는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5km와 15km 좌식 두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듬해 대망의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편은 부인에 대해 “내가 어려웠을 때 힘이 돼 줬고, 운동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줬다. 예쁜 아이들도 낳아서 내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말했다.

그녀는 효부로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 그녀와 같은 착한 며느리를 얻고 싶어서 그녀에게 베트남의 지인을 중매해달라고 부탁한 마을 어른도 있었다.

남편의 국내의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 때문에 그녀가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1년에 고작 두 달 정도다. 그러나 그녀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남편이 해외로 전지훈련을 갈 때는 남편의 건강 걱정을 먼저 했다. 그녀는 “장애로 방황하던 남편이 운동을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면서 “남편이 앞으로로도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